

시누아즈리(Chinoiserie)의 모티브가 지닌
미적 형식과 재현요소

The Esthetic Form and the Representation Element of the motif of Chinoiserie

주저자 : 김연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Kim, Youn Hwa

Hoing-ik Univ.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교신저자 : 한석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Han, Seok Woo

Seou National Univ. of Science & Technology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시누아즈리의 개념생성과 조형 특성

- 2-1. 차이니즘(Chinism)과 시누아즈리(Chinoiserie)
- 2-2. 시누아즈리의 조형성
- 2-3 양식으로서의 미적형식과 조형해석

3. 근대 도자 조형에서의 시누아즈리의 구현

- 3-1. 양식으로서의 재현
- 3-2. 모티브(motif) 재현 요소 및 상징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시누아즈리(chinoiserie)의 양식적, 미학적 형식과 조형성에 대한 개념생성과 함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조형 특성을 중심으로 한 모티브의 재현요소가 지닌 도자 조형 예술 분야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예술적, 미학적인 가치를 재해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개념적 구성요소와 양식적 조형특성간의 영향구조와 미적형식을 분석하고, 재현요소의 의미발견, 규범(Norm) 확인 및 예술적 영향의 사실 확인과 도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조형 모티브 재현에 따른 근원을 확인하고, 차이니즘과 시누아즈리(chinoiserie)조형성의 의미를 체득하였다.

연구결과, 유럽에서 나타난 Chinism의 시누아즈리 모티브는 시누아즈리 취향의 바로크, 로코코 양식이 결합된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새로운 미감 충족의 도구로서 그 가능성을 유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국적인 사고와 사상 즉 도가적, 유가적, 샤먼적 이야기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은 형식적 가공적 조화감을 중시하는 기하학적 조형성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근대 도자기 조형에서의 시누아즈리양식의 주요 모티브는 중국인의 자연관 및 관습·사유와 같은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정서성에 기인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의 시누아즈리는 그 모티브가 동·서양적이며 서구적인 조형 형식이 융합된 통일과 조화를 인식하는 활동에서부터 새로운 근대조형

의 미감 창출의 도구로서 가능성을 유입하는 가치를 함께 지닌다.

주제어

모티브, 시누아즈리, 미학적 가치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element of representation for the motif which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forming shown in artworks on the area of ceramic art, and to reinterpret the artistic and esthetic value after establishing concepts for the pattern and esthetic form of chinoiserie and the concept of formativeness.

As the study methods, the correlating mechanism and esthetic value between the conceptual formative element and the formation characteristics of patterns are analyzed. Identification of meaning of recurring elements and its norm, confirmation of the esthetic influence and verification of the source for appearance of elemental motif centralized on porcelain was carried out to acquire meaning of crossed chinism and chinoiserie.

The chinoiserie motif shown in European Chinism showed chinoiserie preference in Baroque, and had taken a role in formation of new pattern by infusing (Rococo) pattern, thus signifying its possibility as tool for satisfying neo-esthetics. Exotic ideas and thoughts including stories and contents based on Taosim, confucianism and Shamanism in was expressed by balancing realistic and fictional elements and thereby characterized geometric formativeness of Europe.

Chinoiserie motif in modern porcelain figure is confirmed to be originated from metaphysical and physical emotionally like Chinese view of nature, custom and thoughts. The chinoiserie of Europe has the value of flowing in possibility as a tool of creating esthetic sense for new modern forming and recognizing the unity and balance which are the result of combining oriental/western motif with western forming style.

Keyword

motif, chinoiserie, esthetic sens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유형개념으로서의 양식(style)은 살아있는 인간의 정신적 창조 활동으로 감각적, 대상적 형태화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양식은 보편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의 본질 전체를 표현으로 가져오는 일정한 요소의 통형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개성적 형성의 다양성 가운데 존재하는 동일적 특징의 지속적인 형식구조이며 대상적으로 현현(現顯)된 개성적 법칙성을 지니고 있다.

시누아즈리 양식은 시대별, 민족별, 지역별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조형에 나타난 정신적 유형의 대상인 형상화 및 예술적 형성방식의 분화와 표현 특성이 갖고 있는 집단의 객관적 차이로 구분된다. 시간적, 역사적 인식에 따라 발전, 쇠퇴 하면서 존재하여온 시누아즈리양식이 지닌 예술적 영향과 형식에 따른 예술적 기능의 개념 생성과 도자 조형에 표출된 재현의 의미를 모색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시누아즈리풍의 서양 조형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술체험의 근본구조에 대한 미학적 접근방법과 견해 차이에 따라 그것이 지닌 미적 범주가 어떻게 형성 되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술 창작에 재현되어져있는 일정한 요소의 구체적 조형법칙과 모티브를 형상학적, 문화체화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형이하학적 contents	• 양식적 / 미학적 유형 개념생성	• 구성요소 / 미적형식	• 재현요소 / 영향구조 이해	• 예술적 특성 영향 기능
형이상학적	• 영향 구조	• 상관성 분석	• 의미 발견 규범(norm) 확인	• 양식으로서의 가치 재해석

[그림 1] 연구내용 및 절차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시누아즈리의 미적 형식과 조형성에 대한 개념이해와 함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조형특성을 중심으로 한 모티브(motif)의 재현 요소가 지닌 도자 조형 예술 분야에 영향을 분석하고 미학적인 가치를 재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양한 형태 조형의 역사 속에서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조형세계를 창조 하였으며 특히 17, 18세기에는 현대 조형양식의 전기를 이룩한 세기말의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양식

의 모티브가 지니는 재현요소에 대한 연구의 내용은 창조적 조직자인 조형연구가로 하여금 동서양의 교류가 시작되는 조형 양식에 대한 특성변화와 유입 및 조형 세계의 변화 내용을 논리적으로 탐색하고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조형 감각의 확장을 취득시키는 중요성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을 통해 모집된 작품의 개념적 구성요소와 양식적 조형특성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품에 내재 되어 있는 조형요소와 형태관찰 및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해석을 통해 규칙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논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 및 조형개념과 요소확인을 위한 논리적 관계의 체계화와 함께 무질서 속에서 질서의 탐색이 가능하도록 규명된 조형모티브의 재현에 대한 규범(norm)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황의 과정적 기술행위에서 그 형태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화 기술적 연구(Ethno-methodology)방법으로 전개하였다.

2. 시누아즈리의 개념 생성과 조형특성

2-1. 차이니즘(Chinism)과

시누아즈리(Chinoiserie)

차이나(China), 중국, 지나(支那)는 기원전 12세기 초의 은(殷)나라부터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서유럽의 지정학적 특성에 의해 역사이후 수세기 동안 문화적으로도 독자적인 교류를 통해 차이니즘 즉 중국풍(Chinism)에 대한 영향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차이나 문화는 유형의 다양화와 역사성이 함께 고유의 사상과 형성원리를 이루는 가치와 개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중국적인 조형 표현의 모티브(motif)들은 서양인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다. 로마제국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중국이 처음 서양에 알려진 이후로도 꽤 오랜 동안 중국이 어디있는지,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모호한 것들이었다. 해상교역을 시작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소수의 상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거나, 칠기, 실크, 자수, 도자기 차 등의 물품을 통해 얻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카세이(Cathay ; 중국의 옛이름), 차이나(China)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예컨대, 동양의 도가적, 유가적, 사면적 사유등 이국적인 물품이 지닌 정교함은 중국의 옛이름인 차이니즘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냈다.

16세기가 되자 중국의 문화적 산물이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산물들이 보여주는 질적 특성들은 문화적 질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표 1]의 시대 변화에 따라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러 중국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포르투갈의 예수회 신부들이었고, 예를 들어 마테오 리치(Mattheo rich)는 근 25년을 중국에서 살면서 언어와 중국 황실의 예법, 심지어 공자

[표 1] 14~16세기 시누아즈리 양식의 유입 내용과 영향을 준 인물

중국	유럽	성명	영향내용
당 (618-907)	로마 시대 8C중	로마의 황제 (이유르투스 황제)	· 로마인도를 통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직물, 차, 칠기, 비단, 도자기 등 유입
송 (960-1279)	13C초	몽골족	· 몽골족에 의해 중국과의 교역 재개
원 (1206-1368)	13C초 14C	마르코 폴로 (Marco Polo), 선교사 여행가 '존만데벨레' (J. Mandevile)	· 중국의 제도, 비단, 의상 권위 전파 · 문화적 산물의 기술과 수준 소개
명 (1368-1644)	13C말	마테오리치 신부	· 중국의 황실 예법, 동양사상
	15C 16C	노이호프 (네덜란드 대사)	· 유럽장인에 영향을 줌 · 동인도 무역사무소 개설 증가 · 그림으로 중국풍의 정원 생활상 소개
청 (1661-1911)	18C	프레드리크 대제	· 루이사 울리카(Luisa Ulrika)의 찻집 'Tea House' 「kina」, 건축 (시누아즈리풍의 대표적 건축물)

의 사상 등에 달통하여 유럽 사회에 동양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Dawn Jacobson, Chinoiserie). 18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누아즈리의 풍조는 서구 유럽에서 근대적 조형물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시누아즈리 모티브가 유럽에서 조형 양식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보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년)였다. 당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해상권을 쥐게 된 엘리자베스는 동인도회사라는 것을 설립해 이들에게 인도와 극동에 대한 무역의 독점권을 주었다. 이때 생긴 무역의 결과는 영국과 대륙에서 귀족층과 부유층의 예술적 취향이나, 의복, 음식문화 등을 바꾸어 놓을 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이런 상류사회의 변화는 이후 영국과 유럽의 장인들에

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수요층의 이런 변화에 맞춰 장인들은 수입된 시누아즈리 물건들의 패턴, 재료 등을 흉내 내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고유한 버전을 생산해 내기에 이르렀다.



[그림 2] 시누아즈리의 조형양식 사례 ①~⑥

① 로코코장식의 시누아즈리 벽지, ② 중국풍의 대나무 가구(1757), ③ 시누아즈리 가구 일러스트(1754), ④ 중국풍 정원(1742), ⑤ 생신루(742), ⑥ 시누아즈리풍의 다리(18세기)

(출처 : Dawn Jacobson, (1993), Chinoiserie, phaidon, london p.16, 58, 85, 126, 131. Dictionary of Design & Decoration, Collins London & Glasgow, uk, 1973. P. 205.)

이것이 바로 시누아즈리의 시작이었다라고 다윈 제이콥슨(Dawn- Jacobson)은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림 2]에서처럼 시누아즈리는 중국적인 것의 모티브로서 중국의 문화 또는 중국적인 것의 사유(thinking)와 조형유형(Style, Trend), 일상적 물건, 양식, 예술에서부터 일상적 이야기, 예법, 사상 등을 광범위하게 포용하는 다변적, 다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2-2. 시누아즈리의 조형성

조형이념과 형식은 관념에서 형상을 구현하는 어떤 물질을 빌려 이것에 필요한 상징과 의식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조형재료의 설정과 기법 개발을 통한 모든 창조적 표현 활동이 포함되며 통일된 표현 시도의 종합적 추구가 수반된다. 이처럼 조형은 인간과 사용자가 일정한 목적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사물의 유형적, 시각적 표현 결과이며 개념에서부터 형태 짓는 (Form giving)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시누아즈리 조형의 경우도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한 모티브가 기본적인 역할을 갖는데 다양한 의

미와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 결과물을 어떻게 객체화 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와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여야하고 형식을 떠난 정신, 관념의 본성과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내용과 함께 일반적 유형물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 공간의 가운데 모양을 취하고 나타나 있는 형이하학적 접근요소로 이해되어야한다.

아울러 이미지(image)와 목적, 공간 등에 대응하는 재료와 가공에 의하여 조형활동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며 그 결과로 물과 정신의 결합체가 탄생된다. 그 종합성을 어떻게 해석하여 새로운 조형형식을 창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곧 시누아즈리적인 표현대상을 어떤 물질을 보며 이것에 필요한 조형체계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행위적, 표현적 이해에 따라서 구체화되어 지기 때문이다.

시누아즈리풍(유형, 양식)의 조형형식이란 차이니즘 또는 경우에 따라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인도풍 자페니즘(Japanism)에 대해 예술적 표현, 형성, 방식의 유형적 분화에 관해 기술개념과 가치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분류적으로는 중국적인 조형형성 가능성에 본질적 근거를 두고 있다.

[표 2] 시누아즈리의 조형성과 개념성에 대한 동양(중국)과 서양의 비교구분

비교	동양(중국)	서양	동·서양 공통
구분	원형으로서의 시누아즈리의 조형특성	동화, 변형된 시누아즈리의 조형특성	조형 형식과 특성
조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 표현 - 불규칙성 - 대립, 비대칭형 - 조화, 통일감 증시 -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적, 목가적 표현 - 규칙성, 특정형태 - 기하형태 - 대립형 - 조화감 증시 - 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인위의 조화 - 실용과 생활기반 - 규칙과 불규칙 - 장식성 증시 - 차(tea)문화 유입 및 교류
개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적/민년적 - 생명성 - 비수용적, 객체적 - 자연주의 - 젠부디즘(zen-budism)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리적, 미학적 - 형식적, 가공적 - 수용적, 주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적, 비수용적 - 융합성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접근)

이는 결국 눈에 보이는 양상 즉 생김새와 형상과 태도가 중국적인 내용과 정신이 외적으로 표현된 자태를 의미하므로 형식적으로는 크게 2가지로 대별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시누아즈리적인 메타포(metaphor)와 양식을 그대로 지닌 원형(archetype)으로서의 조형물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유형에 근거한 유사, 모방의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유럽에 동화, 변형된 시누아즈리의 조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표 2]에서와 같이 조형성과 개념성에 대한 조형형태 구성과 구조의 유기적, 개념적 특성관계로 비교하였다.

2-3. 양식으로서의 미적형식과 조형해석

시누아즈리양식은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고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도자기, 의상, 가구, 건축, 실내장식 등에서 중국풍의 취미나 물건을 의미한다.



[그림 3] 중국적인 치펜데일(Chippendale) 의자 ①~③

- ① 미국 모더니즘에 나타난 레커장식의 다이닝 의자
- ② 영국 가구디자인에 의한 마오가니조각 의자 (1972)
- ③ 치펜데일 의자 등받이의 식물무늬 조각

(출처 : Dawn Jacobson, (1993), Chinoiserie, phaidon, london p.131, 223 Dictionary of Design & Decoration, Collins London & Glasgow, uk, 1973. p.272)

즉 중국 또는 중국인의 이미지가 시각적, 형상적 조형 형태로 구현된 것으로 중국에 대한 이해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양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종의 중국



[그림 4] 오리엔탈리즘과 시누아즈리 양식 유형①~⑥

- ① 레커가구와 중국 청자로 장식된 빅토리아 풍의 영국의 실내 사례(18세기 중엽), ② 19세기 초엽, 미국 뉴욕의 실내 라디에이터 커버와 시누아즈리 풍의 벽지, ③ 18세기 초엽, 영국의 대표적 실내 유형, ④ 전형적인 중국풍과 로코코풍이 가미된 실내 (18세기 초엽, 영국), ⑤ 중국풍의 벽지로 장식된 브링턴 파빌리언(The Chinese Gallery, Brighton Pavilion, 1848), ⑥ 토마스 치펜데일(Thomas Chippendale) 디자인의 시누아즈리 풍의 접견실(18세기 중엽, 영국)

(출처 : Dawn Jacobson, (1993), Chinoiserie, phaidon, london p.69, 140, 176, 203, 216)

풍에 대한 서구적 전유물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시누아즈리양식은 중국인의 취향 속에 있는 유럽적인 디자인이며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도자기는 유럽적인 형태에 중국적인 모티브를 결합시킨 도자기들이 대표적인 사례들로 구현되고 있다.

그 외에도 18세기 중엽 중국풍과 고딕(Gothic) 그리고 로코코조형 특성이 가미된 칩펜데일 의자(Chippendale chinese chair) [그림 3], [그림 6] 참고)와 동양풍의 건축물 (oriental style building) 그리고 정원(chinese garden)이 존재하고 있다.

시누아즈리양식의 개념적 구성요소와 양식적 조형 특성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그림 5]에 나타난 다이어그램과 같다.



[그림 5] 시누아즈리의 개념적 구성 요소와 양식적 조형 특성간의 상호 연계성

- 문화적 측면으로는 중국, 동양에 대한 숭배, 예찬, 유행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트렌드(Trend) 유입 현상이다.
- 개념적으로는 중국인의 생활 장면(Life Scene) 즉 생활스타일, 생활태도, 행위, 성향, 취미에 대한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조형의 구성요소가 주는 주제, 아이디어, 형상, 색

채, 재질, 모양등은 중국풍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인도, 베트남, 일본 등 동양적 양식의 조형 요소들이 함께 내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 조형성, 시대성, 생활상과 연계된 기능, 색채(예 : 귤색, 동색, 만다린(mandarin))등 이국적 요소와 일상의 콘텐츠(contents)나 이야기에서 표출 된 것이다.

3. 근대 도자 조형에서의 시누아즈리의 구현

3-1. 양식으로서의 재현

조형의 양식은 정신적 유형의 대상인 형상화와 예술적 표현 그리고 형성 방식의 유형적 분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과물로 표현된 조형물은 집단의 객관적 조형 정신의 차이로 구분되어진다.

17세기 시누아즈리는 바로크(Baroque)라는 지배적인 양식으로 동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가 다가오면서 점점 바로크 양식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에서 시누아즈리는 새로운 취향, 즉 로코코(Rococo)를 탄생시키는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 3]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4국의 시누아즈리 도자조형 특성과 조형주제

도자국명 (생산지)	시누아즈리 조형 특성	조형 모티브
네덜란드	바로크적 형태 표현	괴물, 새, 신, 풍경 등
프랑스 - 루앙(Luag) - 네베르 (Nevers) - 세브르 (Sevres)	- 바로크양식의 식기류 - 청화백자 양식의 푸른 페르시아 (Blue persian)	풍경, 새, 마른여인, 빛꽃 등
영국 - 영국식 델프트 - 램베스 (Lambeth) - 브리스폴 (Brisfol) - 우스터 (worcester)	- 중국식 자기생산 - 시누아즈리 취향의 로코코 탄생 - 바로크, 로코코, 시누아즈리의 결합	소용돌이 물, 수파 문양, C&S형 스크롤, 꽃(Floral) 더미, 꽃 장식, 꽃술 등
독일 - 작센 (Saxon) - 마이센 (Meissen) - 델프트 (Delblue)	- 고전적 재현 - 로코코풍 - 이테리풍 - 인도풍 플로럴 재현	아칸사스잎, 담배, 음악가, 도인, 차, 나비사냥, 낚시, 동양식 석탑, 우산 등

17세기 유럽의 바로크양식이 이국적인 것에 의해 시누아즈리를 일반적 매력으로 동화시켰다면, 새로운 18세기 로코코양식의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시누아즈리 장식이 유럽의 로코코를 완벽히 표현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건륭시대인 18세기경 동아시아의 칠기와 도자기 디자인은 여전히 그 양식이 발전해 감에

따라, 시누아즈리는 순수한 유럽적인 모티브들과 결합되었다.

[표 3]의 조형 특성과 조형 주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프랑스의 경우 바로크적인 것과 중국방식이 동시에 적용된 청화백자 양식의 변종인 푸른 페르시안(blue persian)라고 불리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내었다. 프랑스의 시누아즈리는 루앙, 벤센, 세브르를 중심으로 18세기초에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바로크적인 양식과 모티브에 의해 다채류의 도자기가 등장하였다. 18세기까지 프랑스에서는 생산되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파양스 도자기는 소위 루앙 도자기라고 불리는데, 이 도자기들은 시누아즈리 모티브들이 묘사된 다채색의 식기류이었으므로 주로 바로크적인 양식을 가미하고 있었고, 그의 선조들만큼이나 이국적인 것에 친근했다. 이런 조형요소들이야말로 세브르 도자기가 18세기 후반까지 시누아즈리 디자인을 고수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가 된다.

[표 4] 중국과 프랑스 찻주전자에 나타난 화훼무늬(floral pattern)유형(17~19세기)

지역 구분	유형별 내용
중국	
프랑스	

(출처 : 김연화, 찻주전자의조형이념과형식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논문 (ISSN1229-9081.Vol29)) pp. 115~124)

18세기 중엽 전과되기 시작한 영국의 시누아즈리는 기존의 영국양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식으로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주었다. 영국인들은 기존의 영국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적인 궁전의 장엄하고, 차갑고, 남성적인 양식으로 대별되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스타일에 실증나있었으므로 더욱 이에 새로운 유형과 취향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유입된 프랑스의 로코코 스타일은 자연적인 모티브인 아칸사



[그림 6] 시누아즈리 모티브(Motif)의 내용과 이미지

(출처 : Dawn Jacobson, (1993), Chinoiserie, phaidon, london. p. 60, 69, 85, 136, 159, 2, Robin Hildyard, european ceramics, victoria albert museum, 1999. p. 33, 56, 65, 91, John Stevenson and John Guy, Vietnamese Ceramics, Avery Press, 1997. p. 39, 김재규. 유혹하는 유럽도자기, 한길아트, 2000. p. 75, 스테판뎀 시오르뒤랑, 알랭 스테랑, 카트린 동셀, 키티차 상마니, 원저 박혜영 역, 차, 창해, 2000. p. 43.)

스 잎이나 비대칭이며 비고전적이고 비규칙적인 장식과 함께 정제된 우아함 및 S형, C형 소용돌이 문양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조형적 모티브와 시누아즈리적 조형 특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양식은 점진적으로 영국에 전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17세기 영국의 도자기들은 [그림 7]과 같이 확실히 그 형태에서 바로크적인 것이었고 색채는 청화백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었다.

영국의 다채색을 이용한 시누아즈리의 장식과 수출용 녹색 바탕의 연체자기에 가까운 저부조의 텔프트 도자기는 주로 램베스(Lambeth)와 브리스톨(Bristol)에서 1680년경 생산되었다. 1672년 존 화이트

(John wite)는 중국식의 자기를 생산할 특허권을 얻어 직접 생산해낼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특이한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시누아즈리에 반영된 보편적 취향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의 취향 속에 있는 영국적 디자인들을 찾는 작업이



[그림 7] 포트에 나타난 시누아즈리 유형(영국)

(출처 : Bradley Quinn, 「Chinese style」, Conran Octopus, London.uk, 2005. p.36, 79, Dawn Jacobson, (1993), Robin Hildyard, european ceramics, victoria albert museum, 1999. p.76. , Dawn Jacobson, (1993), Chinoiserie, phaidon, london. p. 50, 101)

였다.

독일의 로얄 작센 도자(Royal Saxon)에서 나타나고 있는 님시, 우산 쓴 모습과 함께 등장된 중국의 의상은 16~18세기에 유행했던 이태리의 가면희극에 나오는 배우들의 복장을 조합해서 나온 것이었다. 백



[그림 8] 독일 마이센 제작 시누아즈리 도자 유형¹⁻⁶

① 마이센 독자적인 독자적인 인물상, 18 초엽, ② 탑형상의 페인팅 작품, ③ 로즈티팟, 1730년, ④ 마이센 상징표현, 1725년, ⑤, ⑥ 왕에게 헌정한 금색의 포트 세트

(출처 : Dawn Jacobson, (1993), Chinoiserie, phaidon, london. p. 104, 38, 93, 50, 92, Dawn Jacobson, (1993), Chinoiserie, phaidon, london p.69, 140, 176, 203, 216, 김제규, 유희하는 유럽도자기, 한길아트, 2000, P. 92, 93.)

색도자 탄생과 에나멜 색조의 유럽최초의 탄생을 보이고 있는 마이센(Meissen) 도자기는 인도풍 꽃이라고 불리는 플로럴 패턴(floral pattern)을 사용하여 유럽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이와 같은 이국적인 꽃다발의 패턴들은 이후 18세기 동안 유럽의 다른 곳에서도 유행하게 되었다.

3-2. 모티브(Motif) 재현요소 및 상징

근대 도자조형 작품의 모티브는 유럽인과 유럽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이국적이며 새로운 주제로 접근되었다. 14세기초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The travels of Marco Polo」에서는 군주제도에 익숙해져있는 서구인의 비전과 시각에서는 고유의 특성과 장식성이 내재되고 있었다.

특히 자유스런 즐거움, 풍요, 정교, 기이한 모티브들은 그들의 우회적 시각을 순화시키기에 적합하였고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동양의 철기, 실크, 비단, 도자기, 차, 장식, 벽지, 옷, 옷감, 칠기공예, 금, 은, 상아, 면직물, 날염 등의 물건들은 신비한 이국적인 사교나 사상 즉 도가적, 유가적, 샤머니즘(shamanism)적인 이야기(story telling)와 콘텐츠들은 유럽인에게 중국과 인도인들의 기질과 생활상을 상상하는데 신비스러움을 더하게 하였다.

예를들어, 기하학적 문양들의 조합이 조형 표상의 기초를 이루는 장식미와 자연의 꽃 문양(중심 줄기에서 다른 줄기가 뻗어나가는 자연법칙을 수용한 모티브)을 통해 알 수 있는 세밀한 관찰력이 낳은 패턴, 그림자와 음영이 가지는 빛의 아름다움, 짙은색과 옅은색조의 도자기 등이 가지는 심미성은 초기에는 유럽인들에게 단계적으로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전이되었다.

영국의 미술 개혁을 주장하는 미술가 연합회의 라파엘 전파 구성원들은 중국 청화백자나 벽화의 수입을 시작으로 자연관이 내재된 중국품의 조형성을 좀더 명확하고 단순한 구성을 통해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동양적인 요소가 주는 아름다움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이와 더불어 유럽을 겨냥한 수출용 중국자기는 실용성을 바탕으로 중국품의 상징화에 영향을 주어 18세기부터 큰 인기를 얻었으며 건축 및 가구 장식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임스 휘슬레(James Whistle, 1834-1903)는 일본 판화의 장식적 효과에 매료되었으며, 오스카 와

일드(Oscar Wilde, 1854-1900)와 함께 리버티 런던지점의 식물장식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대 탐미주의자(우미주의자)들은 시누아즈리풍의 단순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운곽적 표현에 매료되어 그들의 조형 작품에 적극 반영하기도 하였다.

유럽인에게는 중국인들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상상하는데 있어 신비감을 더해주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화훼, 식물과 같은 자연 풍물과 도인, 낚시꾼, 음악가등 인물과 함께 앵무새, 공작새와 같은 조류와 곤충 및 정원의 정자, 탑, 우산, 부채, 모란, 연꽃 등 매우 새로운 소재가 서구적인 모티브와 함께 표출되고 있다. 아울러 가구, 실내장식, 건축, 의상, 색채 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티브는 중국인의 자연관 및 관습·사유와 같은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정서성에 기인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4. 결론

17세기중반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과 덴마크, 이태리 등을 포함하는 재현된 조형 양식으로서의 시누아즈리풍의 예술 체험의 근본구조는 이것이 지닌 조형특성 및 미적형식으로 동양적인 사유와 정서 및 정신적 조형 창조 활동에 기인하며 재구성 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양적인 쟈(禪) 부디즘(zen buddhism), 특히 시누아즈리에 나타난 중국의 음양오행, 기(氣) 사상과 같은 종교적, 철학적 이미지의 구조를 띄고 있다. 특히 대나무는 시작과 성장, 장수, 절개, 건강을 상징하며 모란은 전통적인 민간사상과 생활신앙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감, 영혼, 정신 등을 중시하여 찻주전자의 주요 모티프로 등장되고 있다. 이것은 조형구성양식과 미적형식으로서의 의미 있는 조형양식의 창달에 영향을 주어 근대적 변화로 유입시키는 자극의 요인이 되었다.

시누아즈리풍의 물고기 표현은 수초사이에 물고기 두 마리가 코발트로 표현된 굽 달린 접시나 연꽃, 모란에서부터 새, 동물, 풍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티프의 범위를 넓혀 발전되어져 왔으며 18세기 후반까지 중국의 청화자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졌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질 높은 청화자기도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 품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적이며 인도적, 동양적인 문화 예

술적 표현이 융합된 재현요소들은 국가별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형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결국 그 중심은 차이니즘 즉, 중국적인 모티브를 기본으로 전개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 중국적 모티브(motif)는 시누아즈리 취향의 바로크적 형태이미지와 함께 로코코 양식이 결합 하에 새로운 형상의 조형 양식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 동양적이며 서구적인 조형 형상의 통일과 조화를 인식하는 이국적, 정서적 생활문화 활동에서부터 쾌적한 조형요소 관계를 갖도록 새로운 미감충족의 도구로서 그 가능성을 유입시킨 의미를 갖는다.

셋째 : 영국의 경우 도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시누아즈리 양식은 가구, 실내장식, 건축, 의상, 색채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생활의 장면(life scene)에 전유되었는데 이는 개념적으로 중국의 문화와 혼(esprit)이 재구성(recomposition), 변화 수용된 차이니즘, 도(道)사상, 샤머니즘적 관습, 사유 같은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정서성과 시지각적 요소가 결합된 미적 형식으로서의 모티브가 재현된 조형요소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은 중국 도자조형을 중심으로 전개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에는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이 포함되는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의 미적형식과 재현요소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동서양의 교류로 이루어진 조형성 연구를 위한 평가의 기준 설정과 항목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시누아즈리와 같은 문제 이해의 조형 혼(esprit)이 내재되어 있는 작품에 대한 소구성, 미적 프로파일(profile), 시지각적 균형 등 융합적 접근에 대한 객관적 측정척도들의 연구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화, 찻주전자의 조형이념과 형식, 한국 디자인 트렌드학회 논문 (ISSN1229-9081.Vol29) 115-124
- 김재규. 유혹하는 유럽도자기, 한길아트, 2000, 75, 92, 93.
- 스테판멜시오르뒤랑, 알랭 스테랑, 카트린 동젤, 키티차 상마니, 원저 박혜영 역, 차, 창해, 2000, 43.
- Bevis Hilles (1983) *The style of century 1900-1980*, N.Y
- Dawn Jacobson, (1993), *Chinoiserie*, phaidon, london, 38, 50, 58, 60, 69, 85, 92, 93, 104, 126, 131, 136, 140, 176, 203, 211, 216, 223.
- Dictionary of Design & Decoration, Collins London & Glasgow, uk, 1973. 205, 272.
- Giovanni Mirulla, *Naturalistic Floral Decoration on X V III Century Ceramic*, Editrice milo, Italy, 1996. 24p.
- John Stevenson and John Guy, *Vietnamese Ceramics*, Avery Press, 1997. 39.
- Robin Hildyard, *European ceramics*, Victoria Albert Museum, 1999. 33, 56, 65, 91.